

## 광주시교육청, ‘꿈꾸는 문화예술제’ 개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 참여

13개 팀...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예술적 끼·멋 담아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4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특수교육대

상자의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2019 꿈꾸는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저마다의 빛깔로 아름답게 성장한 장애학생들이 예술적 끼를 펼치는 시간으로 장애학생, 비장애학생, 외부초청 공연 등 13개 팀이 관객들과 함께하는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었다.

공연에 참가한 13개 팀은 관악 합주, 해금 독주, 사물놀이, 피아노 독주, K-POP댄스 탭댄스, 난타, 플루트, 발리댄스, 합창, 사자탈춤 등 다양한 장르를 표현했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예술적 끼와 멋을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 제 34

호 사자탈춤 초청공연은 단순히 무대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참석한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직접 배우고 함께 교감하는 뜻깊은 경험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장휘국 교육감은 예술제 시작에 앞서 “그동안 선생님들과 함께 쏟은 노력과 땀, 열정이 모두 표현되는 멋진 무대가 되길 기대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통합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모든 참가학생에 대한 격려와 참석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시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기회 제공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예술적 감성을 깨우고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인호 기자



전국장애인철페연대와 부모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2019년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장애인단체 2020총선연대 출범

#### “장애인 권리 보장 입법 촉구”

“장애인 거주시설 철폐·개별서비스 지원 수립해야”

장애인 단체들이 내년 총선에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질적인 법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2019 세계장애인의 날 투쟁결의대회 및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여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집회에 참여했다. 휠체어를 끌고 집회에 참여한 80여명의 장애인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전장연은 “장애인 인권 선언의 날인 세계장애인의 날에 맞이하는 한국의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자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의약품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점자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편성에 있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가로막으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돈의 논리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들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2일부터 43일째 기획재정부가 건물주인 나라키움 저동빌딩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장연은 “43일째 점거농성에도 ‘건물주’인 기획재정부와 ‘정쟁집단’ 국회의 장애인들의 생존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며 “2020년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와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해인만큼, 21대 총선을 통해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실질적 입법과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정용 ‘의약품’, 시각장애인에겐 오·남용 유발...왜?

한국소비자원 “의약품 10개 중 7개(72.4%) 점자표기 없어”

점자 표기된 의약품이더라도 가독성 낮고 정확히 표기 안돼

의약품 10개 중 7개(72.4%)가 점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일반의약품 45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점자를 표시한 의약품은 16개(27.6%)에 불과하다고 4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구체적으로 일반의약품 12개 제품(26.7%), 안전비의약품 4개 제품(30.8%)에만 점자표시가 있

다고 지적했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안전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환자 스스로 판단해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약품의 의미이다.

소비자원은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의 경우에도 표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이 점자가 표시된 32개 의약품을 국립국어원에 발표한 ‘점자 표기 기초 조사’에 기반해 조사한 결과, 시중

에서 올바르게 점자를 표기한 제품을 찾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32개 의약품 중 11개에 그쳤고,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졌다. 소비자원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가독성 근거로 판단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점자 규격과 항목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와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의약품에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점자 표시

했다.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점자 표시 위치도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소비자원은 제각각인 점자 규격·표시 항목·표시 위치 등으로 인해 점자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의약품 점자표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점자표시를 표준화해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자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들은 의약품 점자표시를 의무화하거나,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점자표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 Together 광산구